최태원 "AI시대, 이사회 독립적 판단 강화로 신뢰 확보"

SK 디렉터스 서밋 2026

그룹 비전·계열사 사업전략 연계
자본배분·이사회 효율운영 논의
현직이사 넘어 퇴임이사 소통 확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카디아 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멤버사 독립이사들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앞줄 왼쪽 열두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맞춰 계열사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했다. AI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 2026'에서 AI 시대 이사회의 역할과 경영전략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의 AI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각 계열사 이사회가 주주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멤버사 독립이사 51명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정재헌 거버넌스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룹 비전과 계열사별 사업전략의 연계, 자본 배분 원칙, 이사회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SK그룹이 AI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룹 차원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개별 계열사의 투자 판단과 자본 배분에서는 주주이익을 고려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K그룹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주요 사업을 연계하는 'AI 플라이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스토리'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부터 디렉터스 서밋을 정례화했다. 이후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와 업무 감독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며 현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참여 상장사들은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채은미 SKC 이사회 의장은 "SK의 거버넌스는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경영 수립 단계부터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이행하도록 고도화돼 왔다"며 독립이사들에게 그룹의 경영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현직 독립이사뿐 아니라 퇴임 이사들과의 소통도 확대했다. SK그룹은 전일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퇴임 독립이사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SK 거버넌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퇴임 이사들이 축적한 경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의 시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최 회장은 "이사들과 함께 만든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SK 거버넌스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며 퇴임 이사들에게 조언자이자 외부의 기대와 우려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염재호 전 SK㈜ 이사회 의장은 "지난 5년간 SK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SK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에 도움이 될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년 근원물가 2.5%, 소비회복 더뎌… 기준금리 변수

금통위, 배당·성과급에 소득 상승
내년 하반기 소비 3.1% 상승 전망
26일 금리 결정·수정 전망 발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비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과 성과급이 가계 지출로 이어지면, 내년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해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디게 낮아질 수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1.9%로 1.0%포인트(p) 낮아진다. 두바이유 기준 원유 도입단가가 올해 배럴당 94달러에서 내년 86달러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전제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 아래로 내려온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6%에서 2.4%로 0.2%p 낮아지는 데 그친다. 내년 연간 전망치는 소비자물가 2.4%, 근원물가 2.5%다. KDI는 유가 하락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근원물가 둔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봤다.

◆ 배당·성과급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올해 3분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0%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은은 완성차 업체 파업과 주식 거래 감소의 영향을 걷어내면 민간소비가 0.4%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달 27일 3분기 GDP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부터 반도체 기업의 현금배당이 지급되고, 내년 1분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계소득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달 12일 공개한 분석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나타나기까지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p 높일 것으로 봤다. 최근 경제전망에선 내년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1.6%, 하반기 3.1% 늘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수요 측 상방 압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금통위도 따진 소비 파급 속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과 8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린 뒤 지난달 22일 연 3.0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당시 앞선 인상의 효과와 3분기 GDP, 10월 물가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2.8%였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민간소비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파급되느냐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제라고 봤다. 성과급과 배당의 혜택은 일부 가계에 집중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폭넓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KDI는 소비 회복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한은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환율 10% 하락시 가구당 소비 연간 16만5000원 절감

한은,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담완화 효과 저소득층이 더 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생활비가 1년간 평균 16만5000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절상이 수출기업의 채산성에는 부담을 주지만, 수입원가와 생활비를 낮춰 내수기업의 경영여건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에 따르면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은 1년간 가구당 약 16만5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지출의 0.47%, 처분가능소득의 0.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생활비 절감률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0.78%로, 상위 20%인 5분위의 0.24%를 웃돌았다. 다만 절감액 자체는 소비 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1년간 절감액은 1분위 8만8000원, 5분위 26만3000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차이는 저소득층이 환율 하락의 가격 반영 효과가 큰 식료품과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전체 가계의 생활비 절감액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비주류음료,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합계 약 78%였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개선 가능성도 제시됐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음식점업과 육상운송업 등 식재료·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한다. 수입 중간재 가격이 낮아지면 운영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을 소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 생활비 절감과 사업소득 개선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 연구진은 평가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익성·투자·매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2002~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화가 10% 절상될 때 내수기업은 같은 업종의 수출기업과 비교해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0.5%포인트(p)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김주형 기자

앤트로픽, 공모가 83弗
전체 규모 약 813억弗
스페이스X 기업공개 조달액 넘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공모가를 희망 범위보다 높은 주당 83달러로 확정했다. 공모 주식 수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별도로 예정된 사모 배정까지 합친 회사의 자금 조달 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앤트로픽에 따르면 회사는 주당 70~78달러였던 희망 공모가 범위의 상단보다 5달러 높은 83달러에 공모가를 책정했다. 공모 주식은 총 9억8000만주로, 앞서 증권신고서에 제시한 8억2500만주보다 1억5500만주 늘었다.

전체 공모 규모는 약 813억달러다. 이 가운데 앤트로픽이 새로 발행하는 약 9억5635만주의 매각 대금은 약 794억달러다. 나머지 약 2365만주는 기존 주주가 매각하는 물량으로, 해당 대금은 회사에 유입되지 않는다.

앤트로픽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다만 이번 상장 과정에서 회사가 조달할 자금은 공모 신주 매각 대금 약 794억달러와 별도 사모 배정 260억달러를 합쳐 약 1054억달러로 예상된다. 사모 배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 조달액 862억달러를 넘어선다.

앤트로픽은 미국 현지시간 19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코드 'ANT'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와 인력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 부담도 시장의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앤트로픽이 증권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연 환산 매출액은 810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0억달러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